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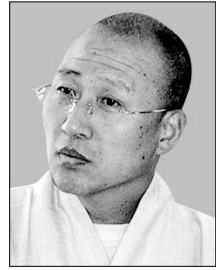
잔치는 끝났다.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갑자기 열반하면서 치러진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종단내외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치러진 선거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지관 스님은 당선소감에서 화합하는 종단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불교계는 국민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장 스님의 갑작스러운 열반의 원인 가운데에는 종단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충격 속에서도 법장 스님의 사신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했다. 특히 총무원 집행부와 법장 스님의 문도들은 평소 생전 스님의 정신과 그 유지를 받들어 시신을 온전하게 병원에 기증했다. 이것은 잠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법장 스님의 열반은 우리에게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님의 열반을 통해 불교는 모처럼 불교다운 모습을 국민 대중들에게 보여 주었다.

지금 국민들은 불교가 역시 위대한 종교이며, 스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불자 세상보기

호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화합은 상생의 뿌리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무원장선거가 진행되었다.

사실 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내내 불안했다. 이번에도 선거가 과열되어 후보들 간에 비난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칫 급전이 오고가기라도 하여 혼란한 양상을 보이면 그 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청정한 삶을 생명으로 하고 정직함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스님들이지만, 스님도 인간이고 선거는 세속적인 경쟁인데 그 속에서 스님들이라고 어찌 다급한 상황으로 물러선

탄해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몹시 걱정했었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간간히 불안한 소문이 들러오기도 했었다. 유력 후보들 간에 자격시비도 있었고, 약간의 비난성 성명서도 있었다.

하지만 신속히 원로회의 의장스님은 유시를 통하여 선거과열을 냉각시켰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송사를 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래서였을까. 선거는 별 탈 없이 무난히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일이다. 아니 이제 우리는 새로

당선된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종단발전을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다소 과열된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다소 나쁜 감정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거가 끝난 만큼 모두 결과를 경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총무원장에 출마한 후보 스님들은 모두 종단 안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스님들이었다. 그동안 종단을 위하여 크게 공헌했고, 덕망이 높은 대덕들이었다. 그러나 선거기간에도 선거후에도 그 덕망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당선된 지관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는 학승이다.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강학을 하였고, 동국대에서 후학을 가르쳐 왔다. 그동안 오직 학문을 하는 분으로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그 결과 지난 만해축전에서 만해학술상을 수상하셨다. 스님의 학문적 공적이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그런 분이 총무원장을 하게 되었으니 종단으로서도 모처럼 학문과 덕망을 갖춘 대덕 종사를 원장으로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다. 그러나 더욱 종도들은 정서적인 이해관계를 거두고 화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 원장스님께서도 무엇보다 선거 후 유증을 해소하고 큰 덕망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옆에서 스님을 보필하는 분들이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기고 파키스탄의 '약사보살' 되어

난민들 불안·공포 속 '불교 메디컬 캠프'서 새희망



지난 10월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난민들을 위해 의료봉사에서 나선 조계종 자원봉사단원.

이 회생되는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발라코트와 만세라, 아보트바드, 무자파라바드, 바그 등 피해지역들을 하루 17시간동안 차량으로 둘러보는 강행군속에 기초조사를 대략마친 선발대는 종단에 신속한 보고를 통해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본진을 급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에서 본대파견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선발대는 현지 지원인력을 확보하여 조직화하였고, 그들의 임무는 한국에서 근로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통역요원과 캠프코디네이터, 수송지원반등으로 구분하여 차질 없이 준비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현지에서 거의 동나다시피 한 텐트를 구입하기 위해 수백km가 떨어진 곳에서 어렵게 확보한 텐트를 본진이 들어오기 전날 야간작업까지 해가면서 '불교 메디컬 캠프' 설치를 완료하였다.

드디어 본진이 들어온 22일, 곳곳의 처참한 광경과 아직도 계속되는 여진에 본진일행들의 표정은 불안과 공포가 역력해 보였다. 애써 안심을 시키고 도착과 동시에 삼귀의, 반야심경, 회생자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불교 메디컬 캠프' 개소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대원들은 여법하지 않은 장소였지만 아침, 저녁 이동 중간 차량 안에서 조, 석, 예불과 천수경, 찬불가

합창 등으로 기도하면서 힘든 고비를 넘기고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약사보살행을 실천하는 한국에서 온 불자들의 모습에서 현지인들은 마치 형제들을 만난 듯한 심정으로 앞 다투어 진료소를 찾아왔고 긴급 구호봉사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이들을 치료하고 보살폈다. 우리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생명의 책과 희망이 울터 오는 것을 느끼면서 장사신을 친 대가족들 가운데 우선 아이들과 중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머리가 콘크리트에 부딪혀 깨진 아이들, 살아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의 끔찍한 부상을 당한 아이들, 손이 모두 잘린 아낙네... 진료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대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에 눈물과 땀이 뒤섞이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급속히 입소문으로 퍼졌고 결국은 진료 마지막 날까지 물러드는 환자들로부터 "제발 여기에 남아달라(Keeping Here Please)"라는 부르짖음을 계속 들어야만 했다.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체계적인 의료캠프운영을 유심히 지켜본 고려대 의료원측과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우리캠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자리에서 계속 진료를 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린 그때까지 남아있던 약품을 비롯한 모든 의료품목들과 진료용 텐트, 행정용품 일체를 고려대 의료원측에 인계하고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발라코트를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아직도 진도 6정도의 지진이 계속되고 산간계곡이 무너지고 있는 등 불안한 현상이지만 그속에서 치료하던 일은 우리 '불교 메디컬 캠프'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활동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최종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장)

불자의 눈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와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과 함께 간화선수행 활성화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시켰다니 대단히 기쁜 일이다. 앞으로 청소년 불자 양성은 불교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화선이 한국불교 수행전통을 대표한다고 하면서도, 대중적 수행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선방의 스님들과 소수의 선도들에게만 이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불교는 선수행의 맥을 이어온 간화선을 통해 수많은 선지식이 배출되었고 현재도 제법에서 실천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는 간화선 위기설까지 대두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추진단 발족에 대한 기대는 큰 수밖에 없다.

차세대 간화선 교육 '큰 불사'

우리는 기대속에 추진단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선수행의 체계화이다. 선원에 가면 죽비를 치고 무조건 화두를 '간(看)' 하라고 하는데 이는 수행초심자들의 흥미를 잃게 한다. 일단 일정한 단계를 이해하고 점검하는 지도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지도자의 발굴이다. 조실스님이 나 선원장, 혹은 입승이 선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수행과정과 낱말이 점검해 줄 수 있는 지도 지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침서는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선의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로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집필자는 선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여야 한다. 집필자나 번역자가 간화선 수행을 해보지 않고 단순 지식적 이론만으로 전개한다면 선수행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세심하게 준비한 뒤 대학생 교화를 위한 간화선 프로그램의 개발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간화선은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행복지수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산(동국대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능인불교대학
원장 지관
대한불교 조계종 국녕사 · 등룡사 · 용장사
사부대중일동